

부드러운 쾌속 질주 ‘반전 매력’... 연비까지 ‘금상첨화’



기아 K8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만의 정속성 돋보여 고속구간서 가속 등 주행성능 굿 1열 동승석 첨단기능 시트 압권 적재공간 넉넉, 헤드룸 다소 좁아

‘친절함과 경제성·첨단기술의 완벽한 조합’

기아 K8이 국내 준대형 세단 시장에서 무서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준대형 세단 시장의 ‘절대 강자’ 현대차 그랜저의 판매량을 넘어서는 등 흥행 물이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기아 K8의 인기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견인하고 있다. K8 하이브리드는 지난달 1988대가 팔리면서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을 넘어섰다. K8은 2.5가솔린, 3.5가솔린, 3.5LPI, 1.6터보 하이브리드 등 총 4개 엔진 모델로 운영된다.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1.6 터보 하이브리드다. 이같은 K8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는 소비자들의 입맛은 완벽하게 저격하고 있다. 최근 만난 K8 하이브리드는 경제성과 친절함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패밀리 세단’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시승은 서울 여의



기아 K8 하이브리드 실내 모습.



기아 K8 하이브리드 주행 모습.

도를 출발해 전라북도 군산을 경유해 돌아오는 약 450km구간에서 고속도로와 도심 등 다양한 주행환경을 경험했다.

우선 파워트레인을 보면 기아의 기술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다. K8하이브리드는 1.6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했다. 이전 모델인 K7 하이브리드와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두 2.4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했다.

K8 하이브리드는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0kgf·m의 1.6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에 최고 출력 44.2kW, 최대 토크 264Nm의 구동모터, 6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 성능을 끌어올렸다. 이전 2.4 하이브리드 엔진과 비교하면 최고 출력(159마력)은 13%, 최대 토크

(21.0kgf·m)는 29% 향상됐다.

실제 주행에서도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제공했다. 하이브리드만의 부드러운 승차감과 정속성을 갖추고 있지만 고속구간에서의 가속력은 나무랄 부분이 없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110km/h를 넘어가면 운전석 시트가 허리를 감싸며 운전자의 주행을 돕는다.

또 첨단 기술을 대거 탑재해 운전자의 프로감을 최소화한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2(HDA2),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등의 기능은 자율주행 기술 발달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속도로는 물론 도심에서도 핸들에 살짝 손을 얹고 있으면 핸들이 스스로 조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승 중 가장 고마웠던 기능은 1열 동승석에 적용된 ‘릴렉스 콤포트 시트(신체에 가해지는 체압과 하중을 분산시켜 무중력 자세로 시트 포지션을 전환하는 기능)’다. 아이와 장거리 이동시 동승석에 어린이 보조용 좌석을 설치, 탑승한다. 이때 아이가 잠이들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시트 측면에 있는 릴렉스 콤포트 시트 활성화 버튼을 활성화 하자 시트 전체가 뒤로 눕혀지면서 안락한 상태를 만들어줬다.

전장과 휠베이스가 넉넉한 만큼 실내 공간도 여유로웠다. 1열과 2열 모두 넉넉한 레그룸을 제공해 탑승객의 편안한 이동을 돕는다. 다만 1열과 2열 헤드룸

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키가 177cm인 기자가 바른자세로 앉았을 때 헤드룸은 좁다는 느낌을 받았다. 경쟁 모델인 그랜저와 비교해도 헤드룸은 부족했다. 천장이 트렁크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패스트백 스타일을 적용해 2열도 헤드룸은 불편했다.

K8의 적재공간은 준중형 SUV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트렁크 문을 열면 끝이 안보일 정도로 깊고 넓었다. 적재 공간은 510리터로 준중형 SUV 수준이다.

하이브리드 모델 답게 뛰어난 연비를 자랑했다. K8 하이브리드는 K7 하이브리드(16.2 km/L) 대비 약 11% 높은 복합연비 18.0km/L를 달성했다. 시승 모델은 18인치 휠을 적용해 복합연비 16.8km/L의 효율을 갖추고 있다. 시승시 고속주행과 복잡한 도심 등을 주행했지만 17.5km/L를 기록 복합연비를 훌쩍 넘어섰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와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을 반영해 노블레스 라이트 3698만원, 노블레스 3929만원, 시그니처 4287만원이다. 헤드룸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첨단기술과 경제성, 넓은 공간 등을 고려하면 패밀리세단으로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모델로 손색없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디스플레이, 카카오와 스마트 주차장 구축

코엑스 주요 출입문 6곳에 55인치 투명 OLED 설치

LG디스플레이 투명 OLED가 카카오모빌리티 스마트 주차장을 만든다.

LG디스플레이는 서울 코엑스 주차장에 인터리어용 55인치 투명 OLED를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주차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주차’ 서비스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도심 스마트 모빌리티 거점으로

육성 중이다.

투명 OLED는 주차장과 매장을 연결하는 주요 출입문 6곳에 설치됐다. 유리창에 부착해 공간을 절약하면서 개방감을 높여준다. 카카오모빌리티 브랜드 영상을 활용해 환영 인사 등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준다. 아울러 LG디스플레이는 디지털 사이니지용 55인치 OLED 패널도 함께 공급했다. 카카오 T 주차 이용정보 및 고객 참여형 광고 등 주차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해서다.

LG디스플레이 투명Task 조민우 담당은 “투명 OLED로 혁신적인 공간 디자인과 차별화된 정보 전달 방식을 지속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오너인프라사업팀 최윤규 이사는 “LG디스플레이의 OLED로 대규모 디지털 사이니지는 물론 이용자 혜택을 제공하는 콘텐츠 연계도 가능해져 주차 서비스의 또 다른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Life’s Good”... LG전자, 美 타임스퀘어에서 3D 콘텐츠 상영

새학기 관련 메시지 전달

LG전자가 새학기에도 ‘라이프스 굿’을 외친다.

LG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라이프스 굿 메시지를 담은 3D 콘텐츠를 상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크레파스와 가위 등 학교와 관련한 학용품에 ‘라이프스 굿’ 문구를 표현하는 3D 영상으로 개학을 주제로 제작됐다. 다음달 초까지 상영하며 고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앞서 LG전자는 ‘라이프스 굿’ 의미를 알리기 위한 전광판 마케팅을 지속 중이다. 작년 티시 감독 제작 라이프스 굿 영화를 비롯해 다큐멘터리 ‘라이프 인 어 데이’, ‘백스라이브: 세계를 다시 하나로 하기 위한 콘서트’ 등을 전광판



라이프스 굿 3D 콘텐츠

/LG전자

에 소개했다.

LG전자 북미지역대표 겸 미국법인장 윤태봉 부사장은 “지나해부터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활용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Life’s Good’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왔다”며 “이번에도 많은 고객이 3D 콘텐츠를 즐기며 ‘Life’s Good’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청라 주행시험장 능동 안전 시험로에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주행 중인 모습.

GMTCK, 청라에 능동 안전시험로 완공

최대 600m 4개 차선 규모 자동긴급제동 등 테스트 가능

GM의 연구개발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이하 GMTCK)가 청라 주행시험장 내 다양한 능동 안전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GM의 한국 내 연구 개발법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 셈이다.

12일 GMTCK에 따르면 지난 10일 GMTCK 청라주행시험장에서 열린 능동 안전 시험로 완공식에는 로베르토 램펠 GMTCK 사장과브라이언 맥머레이 GMTCK 부사장 등 GM의 한국 사업장 리더십 및 임직원들이 참석, 능동 안전 시험로의 완공을 축하하고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완공된 능동 안전 시험로는 길이 최대 600m와 폭 15m의 4개 차선 도로 규모로, 자동 긴급 제동(AEB), 후측방 자동 제동(RCTB), 차선 유지 보조(LKA) 등 신차평가제도(NCAP)에 활용되는 시나리오에 맞춰 차량의 다양한 능동 안전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

는 환경을 갖췄다.

완공식에 참석한 로베르토 램펠 사장은 “능동 안전 시험로 완공을 통해 청라 주행시험장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연구 개발 능력을 갖추게 됐다”며 “쉐보레를 비롯한 GM 내 브랜드 제품을 위한 능동 안전 기술 개발을 통해 GM 내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의 차량 개발 조직인 GMTCK 내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GMTCK 청라 주행시험장은 이번 능동 안전 시험로 완공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각종 건물 및 시험주행로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 GM내 GMTCK의 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GMTCK에는 현재 3000명 이상의 우수한 엔지니어가 20여개의 글로벌 차량 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라 주행시험장 외에도 디자인센터, 엔지니어링센터, 생산기술연구소 등 GM의 최첨단 글로벌 차량 개발을 위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양성운 기자